

경기도 일본공공도서관 정책 연수에 참가하고 나서

신정아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jashin@library.kr



막 봄으로 들어서서는 문턱에서 과연 공공도서관이 어떤 모습으로 지역사회 속에 자리 잡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슴에 안고 시민 1인당 대출권수 4권 이상 실적을 가진 일본도서관 현황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함께 3월 5일부터 10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공공도서관 정책연수에 참여하였다. 본 연수는 2006년도 경기도 공공도서관평가를 통해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사서들과 함께 사기진작의 목적과 더불어 일본의 도서관 서비스 및 도서관 운영의 최근 동향과 운영체제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정신없이 지내던 일상으로부터 벗어났기에 낯선 여행지가 주는 자유로움이 한껏 나를 들뜨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같이 동행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만남과 대화들이 방문지의 기억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 시간이 되었다.

본 연수에서는 오오타구 하네다도서관, 가와사키도서관, 나카하라도서관, 가나가와 현립도서관, 교토시립 중앙도서관, 오사카시립 니시요도가와도서관등 6개관을 방문하였다.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미리 일본도서관으로 질의서를 보낸 까닭에 각 해당 도서관에서 열심히 준비하여 답변해주어 많은 정보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6개

도서관 방문을 통해 개인적으로 느낀 몇 가지 일본공공도서관의 장점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이미 많이 언급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의 위치에 따른 이용자들의 용이한 접근성과 좁은 내부공간을 실속 있게 잘 구성한 점이다. 오래되어 낡았거나 면적이 좁지만 그 안에 조화롭게 잘 꾸며놓은 내부 공간 구성이 일본의 도서관 역사와 그들의 꼼꼼하고 치밀함을 느끼게 하였다.

가와사키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시내의 복합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어 주 이용자들이 회사원들이었고, 교토시립중앙도서관은 시 병설 장애학습센터와 함께, 오사카 니시요도가와도서관은 구청 지하1층에, 그 밖의 도서관들은 대부분 동네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단독으로 위치하기 보다 다른 건물과 같이 접하고 있었으며, 규모가 큰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동차 주차공간이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고 이용자들 대부분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었다. 나카하라도서관 마당에 가득 차 있는 자전거를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공공도서관이 떠오르는 것은 왜 일까?

또한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 도서관, 작은 도서관의 확충에 신경을 쓰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도서관 내부 공간 활용 측면은 참 배울 점이 많았다. 첫 방문 도서관이었던 오오타구 하네다도서관의 경우에는 대출반납부터 어린이실, 참고열람실, 간행물실, 종합자료실, 시청각실을 한 공간에 모아두고 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인물 표시판과 칸막이 정도로 공간을 구분하였는데 그 공간 구성이 짜임새 있게 꾸며져 있었다.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



■ 하네다도서관의 다다미방 열람실: 일본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으며, 이용자가 편하게 앉아서 독서 하도록 배려한 다다미방 열람실

해 도서관 벽면 공간을 이용해 불박이 서가를 제작하거나 열람석을 두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와 그 공간의 역할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자료를 편히 볼 수 있도록 은은한 불빛과 아늑한 소파를 둔 브라우징 코너, 일본 전통 다다미 방 열람실 및 6개 좌석을 가진 이용자카페 등이 눈에 들어왔다. 작지만 도서관이 서비스할 내용은 다 담고 있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사실 방문도서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가 건물이나, IT 및 자동화 시설 측면에서는 일본과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도서관의 규모나 역할 및 이용자를 고려한 내실 있는 내부 공간 구성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보다는 오랜 기간동안 도서관문화가 발전되어 왔기 때문인지 정보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노령인구, 장애인, 이주민을 위한 배려가 돋보였다.

방문한 도서관마다 노령자 및 눈이 나쁜 이용자가 이용하도록 글자가 크게 인쇄된 대활자본 도서들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독서가 용이하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면낭독실이 준비되어 있었다. 대면낭독실은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데 이용자가 이용을 원하는 일시를 도서관에 예약을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이용자용 자료 검색대는 터치스크린 방식과 키보드입력이 가능하도록 이중으로 운영되고 있어 키보드 조작에 쉽지 않은 이용자를 배려하였고, 그 도시에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이민자 및 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어, 한국어 등 다국어 지원하고 있었다. 다국어 자료 정리는 해당 언어의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있었으며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서관이 가지



■ 니시요도가와도서관의 대출대:
노령자와 장애인이 함께 하는 도서관의 모습

고 있는 다국어 자료들의 판권정보를 스캐닝하여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 중가와 사키시립도서관 경우에는 부천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한국자료를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서인지, 한글을 지원하는 이용자 검색대 뿐만 아니라 한글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하나 따로 설치하고, 키보드에는 한글 자모음을 붙여 놓아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는 세심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도서관마다 자료실 내부에는 꼭 서가배치도를 부착하고 각 서가에 꽂혀있는 자료의 대분류를 표기하여 이용자가 쉽게 도서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공공도서관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 및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센터로서의 기능 및 역할에 충실한 모습이다.

방문한 모든 도서관의 입구에는 지역 정보를 알려주는 포스터와 홍보물, 전단지가 놓여져 있어 이용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 지역에 이주하는 사람을 위한 지역정보 - 지역소식지, 공공기관 소개, 응급상황 및 지진발생시 대처방안, 이민자들을 위한 정보들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및 정보관련 - 행사, 콘서트 등 포스터 및 홍보지, 소식



■ 요코하마 나카하라도서관: 도서관의 입구에 지역사회 및 행사정보를 비치하고 있음

지 등이 구비되어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지역정보 제공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각 공공도서관에는 지역자료 코너가 구비되어 있어 누구나 그 지역 관련 궁금증을 도서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자료의 전산화보다 우선적으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일본인들의 꼼꼼함이 느껴졌다. 사실 지역정보 수집에 있어서는 전산화작업보다 자료 발굴의 노력이 더 어려운게 현실이기도 하다.

네 번째는 도서관협력체계에 따른 각 도서관들의 역할 분담과 상호대차서비스의 활발함이다. 일본에서는 중앙관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 지역 내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분관 도서관들을 지원하며 지역 내 다른 관종의 도서관 등과 협력하는 사업 및 지역자료 수집·보존, 연구개발, 직원연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각 단위도서관들은 분관체제 형식으로 도서관의 최일선 서비스라 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 위주로 운영하며 소장 자료도 어린이, 고령자, 주부 등을 위한 책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체제를 바탕으로 상호대차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역간에 운영되는 시스템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지역 내에서는 정기적으로 상호대차 차량의 순회를 통해 다른 도서관에 소장된 책을 상호대차하거나, 지역 내 다른 공공도서관에서도 자료를 반납할 수 있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장된 자료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운송료를 부담하면 이용이 가능하였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책, 잡지, CD-ROM도 상호대차 가능하다고 한다.

도서관을 방문할 때마다 사서들이 앉아있는 대출반납대의 뒤편에는 이용자들로부터 예약된 상호대차 자료들이 영수증과 함께 가득 쌓여 있었으며, 도서관 마당



■ 나가하라도서관의 상호대차준비:
상호대차박스에 예약, 반납, 대출할 도서를 싣는 모습

이나 짜투리 공간을 이용하여 상호대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활발한 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상호대차시스템에서는 자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료의 경

우에는 상호대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자관의 자료가 대출중이면 타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위주의 예약 개념으로 상호대차 서비스를 운영하는 점이 신선하였다.

다섯 번째는 각 도서관에서 매년 발간하는 연보 및 도서관 활동실적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지역의 중앙관에서 그 지역에 위치한 분관 도서관들의 연간 통계자료부터 주관한 행사 및 서비스 내용, 예산 등을 담아서 도서관 홈페이지 및 보고서 등을 통해 도서관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었다. 가나가와현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자체 지표를 개발하여 활동평가를 통하여 자기진단을 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매년 발간되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도서관에서는 조직의 목적이나 목표에 따른 달성의 정도 및 도서관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고 이용자들에게는 운영의 투명성과 도서관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에게 공동의 편익을 제공하는 기관임을 알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매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연감』을 발간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전국의 모든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 공공도서관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개별도서관

에서는 평가를 받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다보면 힘들지만, 그 한해의 사업을 정리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처럼 매해 도서관활동 실적보고서가 발간된다면 현재의 공공도서관의 운영 실태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발전정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어 향후 도서관 정책을 세우는 데에도 근간이 되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밖에도 참고봉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참고봉사협력시스템 운영 부분이나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개관/폐관시간의 탄력적 운영, 자원봉사자들의 활용, 자료 폐기 등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많았지만 이 정도로 짧은 연수기간 동안 느낀 바를 정리할까 한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지자체에 따라 예산 및 인력문제로 대출반납 및 정리업무들이 위탁경영으로 넘어가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를 가지고 있었지만 글의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점보다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및 활동들을 살펴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공도서관을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이번 연수가 해외 도서관의 벤치마킹으로서는 처음인지라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나, 첫 연수를 통해 느꼈던 가슴에 있는 말을 같이 공유해 보고자 두서없이 많은 내용을 언급하였으니 너그러이 읽어주시길 바란다. (☺)

* 경기도 일본공공도서관 정책 연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에서 발간한 『2006년 경기도공공도서관 평가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 필자 주